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研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상의학부¹,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²

홍진우¹ · 이명렬² · 이병욱² · 백진웅^{2**}

Extended indications of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 using 『Dongeuibogam』 - The case of Bojungyikgi-tang -

Hong Jin-Woo¹ · Lee Myeong-Ryeol² · Lee Byung-Wook² · Baek Jin-Ung^{2**}

¹Korean Inter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doesn't have pretty large quantity of contents, so indications of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s on that medical book are small. Therefore, indications of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 need to be extended for broader clinical use of Four-Constitution Medicine. There would be some methods to do that, and we could review the literatures that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s are based on. We reviewed Bojungyikgi-tang on 『Dongeuibogam(東醫寶鑑)』, and we found that if the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 is based on Sanghan formula(傷寒方) or non-classical formula(後世方), it is worth adding more indications of base formulas to those of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 For exmaple, Indications of Bojungyikgi-tang for So-Eum type could be extended by indications of non-classical formula(後世方) Bojungyikgi-tang and modified formula(加減方) Bojungyikgi-tang on Dongeuibogam, We supposed 23 indications of non-classical formula(後世方) Bojungyikgi-tang, and 20 indications of modified formula(加減方) Bojungyikgi-tang as possible indications of Bojungyikgi-tang for So-Eum type.

Key Words :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Dongeuibogam(東醫寶鑑), Bojungyikgi-tang(補中益氣湯), Extended indications

I. 序 論

四象醫學의 原典인 『東醫壽世保元』에는 李濟馬가 新定한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과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과 太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과 太陽人病 應用設方藥 二方을 합쳐 모두 67개의 體質處方이

수록되어 있다.¹⁾ 따라서 현재 四象醫學 임상가들은

* “본 연구는 2008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 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교신저자 : 白晉雄. 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E-mail : mukjagan@naver.com, Tel : 051-510-8452
접수일(2011년 4월26일), 수정일(2011년 4월26일),
게재확정일(2011년 5월20일)

이 67개의 處方을 基本方으로 삼고, 또 『東醫壽世保元』 내에 언급된 太少陰陽人의 生理·病理·藥理·臨床例를 기본 근거 삼아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東醫壽世保元』은 분량이 적은 醫書이고, 따라서 그 안에 언급된 내용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少陰人의 대표적 處方 중 하나인 補中益氣湯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病證과 관련해서는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과²⁾³⁾ 少陰人 泛論에⁴⁾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⁵⁾ 이것만으로는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즉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병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체질별 基本方들의 適應證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시도 및 성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東醫四象大典』⁶⁾에서는 다양한 證狀別로 각 體質別 基本方 및 應用方을 서술하였고, 『四象醫學性理臨床論』⁷⁾과 『東醫四象醫學講座』⁸⁾에서는 각 基本方別 適應證과 加減法을 서술하였고, 『改訂增補四象醫學』⁹⁾에서는 證狀別 基本方 및 基本方別 解說을 모두 서술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人 生理·病理·藥理·臨床例에 근거하고 또 著述家들의 임상 경험에 근거해 基本方의 적용 범위 확장을 도모한 것으로써 나름대로의 일정한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을 위해선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의 문헌적 근거를 파악하고, 그 문헌의 폭넓은 탐색을 통해 基本方 適應證의 확장을 도모하는 문헌적 탐구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을 문헌에 근거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한 예로 補中益氣湯證을 검토하여¹⁰⁾, 일정한 성과를 얻었기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東醫壽世保元』과 『東醫寶鑑』의 관계

1) 『東醫壽世保元』의 구성 방식

『東醫壽世保元』 중 체질별 病證과 이에 대한 應用 處方에 대해 본격적으로 敘述한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太陽人 內觸小腸病論」 등의 소위 四象人 病證論들은 기존 醫書에서 論旨 전개에 필요한 病證과 處方 관련 조문을 인용한 후 李濟馬 자신의 의견 및 新定 四象 處方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補中益氣湯과 관련된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부분을 보면,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말하기를

-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6, 701, 716, 724.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 新定 太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 新定 太陽人病 應用設方藥 二方”
-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51.
“發熱惡寒而有汗者此亡陽初證也必不可輕視之先用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 3) 본 논문에 인용한 『東醫壽世保元』 原文은 『改訂增補 四象醫學』(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서울. 집문당. 2011.)에 수록된 辛丑本을 底本으로 삼았다.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敎室에서 공통으로 출간한 교재이므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68.
“陽明 太陽之危者 獨參八物湯 補中益氣湯 可以解之”
- 5)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處方 소개에서 한 번 더 언급되지만 구체적 病證 관련 언급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6) 朴爽彦 編譯.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1977.
- 7) 金洲 著. 四象醫學 性理臨床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8.
- 8) 柳周烈 著. 東醫四象醫學講座. 서울. 大星文化社. 1998.
- 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 10) 본 연구에서는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基本方 중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 문헌 탐색을 통한 四象人 基本方 適應證 확장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補中益氣湯을 예로 선택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後世方 補中益氣湯과 四象方 補中益氣湯 둘 다 頻用되는 중요한 處方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後世方 補中益氣湯에서 四象方 補中益氣湯이 유래하였다는 상호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發熱하고 惡寒하고 脈浮한 증상은 表證, 즉 太陽證에 해당한다. 太陽傷風證의 경우에는 脈의 陽部位는 浮하고 陰部位는 弱한데, 陽部位가 浮한 것은 熱이 저절로 나기 때문이고 陰部位가 弱한 것은 汗이 저절로 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으슬으슬 추운 惡寒과 惡風이 있고 쉰 듯이 열이 나며 코가 막히고 마른 구역질이 나는 경우에는 桂枝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危亦林的 『得效方』에서 말하기를 ‘四時瘟疫에는 마땅히 香蘇散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龔信的 『醫鑑』에서 말하기를 ‘傷寒證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쭈시는 경우에는 表裏를 가리지 말고 藿香正氣散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¹¹⁾라고 기존 醫書에서 필요한 내용을 인용한 후, “(지금까지 인용한 내용과 관련해) 언급해보면, 張仲景이 말한 ‘太陽傷風으로 發熱惡寒’한 증상은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증상으로 發熱惡寒하면서 無汗한 경우는 桂枝湯 혹은 川芎桂枝湯 혹은 香蘇散 혹은 芎歸香蘇散 혹은 藿香正氣散 (중에서 가장 적합한 處方)으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發熱惡寒하면서 有汗한 경우는 亡陽初證으로 절대 가볍고 쉽게 보아서는 안 되니 먼저 黃芪桂枝湯 혹은 補中益氣湯 혹은 升陽益氣湯 (중에서 가장 적합한 處方)으로 三日동안 연속 복용한다. 그래도 汗이 그치지 않고 병이 낫지 않으면 桂枝附子湯 혹은 人蔘桂枝附子湯 혹은 升陽益氣附子湯(중에서 가장 적합한 處方)으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¹²⁾라며 기존의 病證을 四象人 病證으로 전환하여 해설하고 또 적합한 四象方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 구성 방식이다.

1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650-651.

“張仲景 傷寒論曰 發熱 惡寒 脈浮者 屬表 即 太陽證也 太陽傷風 脈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齋齋惡寒 漸漸惡風 翁翁發熱 鼻鳴乾嘔 桂枝湯主之 危亦林 得效方曰 四時瘟疫 當用 香蘇散 龔信 醫鑑曰 傷寒 頭痛 身疼 不分表裏證 當用 藿香正氣散”

1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51.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即 少陰人 腎受熱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 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發熱惡寒而 有汗者 此 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 汗不止 病不愈則 當用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2) 『東醫壽世保元』 收錄 인용문의 出典

그런데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문장을 原書와 『東醫寶鑑』과 비교해보면 이제마가 인용문을 原書가 아니라 대부분 『東醫寶鑑』에서 재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앞에서 살펴본 문장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張仲景 傷寒論曰”과 “危亦林 得效方曰”과 “龔信 醫鑑曰”의 표현을 보면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들을 『傷寒論』과 『得效方』과 『醫鑑』에서 각각 인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東醫寶鑑』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했다는 뜻이다. 문장 비교를 통한 확인 외에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少陰人論」 첫머리에 記述된 李濟馬 본인의 언급, 즉 “許浚의 『東醫寶鑑』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張仲景 『傷寒論』과 여러 醫家들의 주장을 하나로 모으고, 의문이 나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 (해설을) 별도로 덧붙여 太少陰陽 四象人의 傷寒時氣表裏病論을 정리하였다.”¹⁴⁾을 통해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대부분의 病證 및 處方 관련 내용들이 『東醫寶鑑』에서 인용된 것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東醫寶鑑』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既存 醫學 내용의 出典이라고 할 수 있다.

3) 『東醫寶鑑』의 四象醫學的 解釋의 한 방법

이처럼 『東醫寶鑑』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기존 醫學의 病證 및 處方의 出典이지만 방대한 분량 중에서 실제 인용된 부분이 극히 적음을 고려할 때, “『東醫寶鑑』의 나머지 부분을 체질적으로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다.”¹⁵⁾라는 주장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東醫寶鑑』의 四象醫學的 재해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로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處方名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東醫寶鑑』에서 관련 문장을 추출한 후 그 문장 내용을 분석하여 四象方

13) 원진희, 김경요, 유관석. 東醫壽世保元에서 인용한 東醫寶鑑의 文章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학회지. 2006. Vol.18(3). p.12.

14) 李濟馬 著, 권건혁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53.

“因許浚東醫寶鑑所載 摘取張仲景傷寒論文 及諸家所論抄集一通 別附疑難 以爲太少陰陽四象人 傷寒時氣表裏病論”

15) 이필우, 윤창렬. 東醫壽世保元 인용문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제12권 2호. p.84.

適應證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少陰人 補中益氣湯처럼 後世方 補中益氣湯과 이름이 같고 또 處方 내용도 後世方 補中益氣湯을 少陰人에 맞게 약간 수정한 것이 명백한 處方的 경우, 補中益氣湯이란 處方名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東醫寶鑑』에서 관련 문장을 추출하여 분석하면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適應證을 보다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문헌에 근거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 방안

1) 『東醫壽世保元』 收錄 處方的 時期別 分類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處方を 시기별로 분류하면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발췌한 處方과 唐宋元明 醫家들의 著述中에서 발췌한 處方과 李濟馬가 新定한 處方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張仲景의 『傷寒論』에서는 少陰人病에 사용한 處方 二十三方과 少陽人病에 사용한 處方 十方과 太陰人病에 사용한 處方 四方을 합쳐 모두 37개의 處方を 발췌하였다.¹⁶⁾ 唐宋元明 醫家들의 著述中에서 발췌한 處方を 보면, 少陰人病에는 宋元明 三代 醫家の 著述中에서 十九方을 (巴豆藥六方 포함), 少陽人病에는 元明 二代 醫家の 著述中에서 九方을, 太陰人病에는 唐宋明 三代 醫家の 著述中에서 九方을 선별하여 총 37개의 處方を 발췌하였다.¹⁷⁾¹⁸⁾

그런데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발췌한 處方は “임상에서 사용했던 處方(經驗設方)”이라고, 唐宋元明 醫家들의 著述中에서 발췌한 處方は “임상에서 두루 사용했던 중요한 處方(經驗行用要藥)”이라고 統稱하며 구분

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新定한 處方を 統稱할 때도 상대적으로 임상 경험이 많았던 少陰人·少陽人·太陰人 處方は “應用要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임상 경험이 거의 없었던 太陽人 處方は “應用設方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¹⁹⁾, “要藥”과 달리 “設方藥”에는 “중요한 處方”이라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즉 “사용하려고 만들긴 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혹은 “사용하려고 만들긴 했지만 중요성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經驗設方”은 “임상에서 사용했던,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處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唐宋元明 醫家들의 소위 後世方들이 『傷寒論』 處方보다 더 體質的 특성에 부합하며 널리 쓰인 중요한 處方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東醫寶鑑』에서 處方名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관련 病證의 추가 추출을 시도할 경우, 傷寒方보다는 後世方을 검색어로 사용할 때 보다 많은 適應證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補中益氣湯이나 六味地黃湯처럼 四象方과 後世方의 이름이 일치할 때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傷寒方과 後世方 뿐 아니라 『東醫壽世保元』에는 傷寒方과 後世方을 體質的 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處方 혹은 완전 새롭게 創方한 處方 등 李濟馬 본인이 조선 후기에 新定한 67개의 四象方이 있다. 少陰人 處方 二十四方과 少陽人 處方 十七方과 太陰人 處方 二十四方과 太陽人 處方 二方이 그것인데²⁰⁾, 이 중 少陰人·少陽人·太陰人 處方は 少陰人·少陽人·太陰人의 體質病證에 각각 딱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處方이란 의미로 “應用要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太陽人 處方は 太陽人 體質病證에 딱 맞게 적용하려고 만들

1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1, 698, 715.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 二十三方 ~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 十方 ~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四方 ~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1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2, 699, 715.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六方 ~ 元明二代醫家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18) 太陽人의 경우에는 處方は 없고 本草 單方만 記載되어 있어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19) 甲午本(李濟馬 著, 권건혁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93, 228, 244, 253.)과 甲午本을 改抄한 辛丑本(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6, 701, 724.) 모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때, 의도를 가지고 달리 표현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2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6, 701, 724.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新定 ~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新定 ~ 太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新定 ~ 太陽人病 應用設方藥 二方新定 ~ 太陽人病 應用設方藥 二方”

있지만 아직 중요한지 여부는 검증되지 않은 處方이라는 의미로 “應用設方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統稱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基源別 분류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을 基源別로 분류하면 크게 太陰人 麻黃發表湯이나 少陰人 川芎桂枝湯처럼 傷寒方을 기원으로 둔 四象方, 少陰人 補中益氣湯이나 少陽人 六味地黃湯처럼 後世方을 기원으로 둔 四象方, 太陰人 太陰調胃湯이나 調胃升清湯처럼 명확한 기원을 찾을 수 없는 독창적 四象方의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3) 문헌에 근거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의 意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四象方은 그 基源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명확한 기원을 찾을 수 없는 독창적 四象方의 경우에는 문헌에 근거해 해당 處方의 適應證을 추가로 얻는 것이 어렵다. 이에 비해 傷寒方에서 기원했음이 분명해 보이는 四象方의 경우에는 傷寒論을 포함해 그 이후의 서적에 수록된 해당 處方 관련 문장의 검토를 통해, 또 後世方에서 기원했음이 분명해 보이는 四象方의 경우에는 해당 處方의 최초 기재 서적을 포함해 그 이후의 서적에 수록된 해당 處方 관련 문장의 검토를 통해 각 處方의 適應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 확보한 각 處方의 適應證을 바로 四象方의 適應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適應證으로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중에서 發熱惡寒하고 有汗한 亡陽初證”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證狀에 대한 기준 醫書의 記述로 張仲景의 『傷寒論』과 危亦林的 『得效方』과 龔信的 『醫鑑』의 내용을 인용하였다.²¹⁾²²⁾ 이와 비교할 때 『東醫寶鑑』에

수록된 補中益氣湯證 중의 하나인 “오랫동안 血便을 보고 元氣가 떨어진 경우”²³⁾는 비록 四象方 補中益氣湯과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약물 구성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適應證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後世方 補中益氣湯을 체질에 적합하게 변형한 處方이라고 해서 後世方 補中益氣湯證을 곧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古人(張仲景)의 桂枝湯 관련 조문에는 證狀과 處方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해당 證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후대 사람의 香蘇散과 藿香正氣散 관련 조문에는 證狀과 處方이 모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證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금 다시 정리하면서, 證狀은 古人이 분류한 證狀을 따르고 (이를 치료하는) 處方은 古人과 後人の 것을 모두 선택하였다.”²⁴⁾라는 언급을 통해 李濟馬가 執證의 명확함과 불명확함의 구분을 엄격히 했음을 고려할 때,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病證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少陰人 補中益氣湯 適應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음이 분명해 보이고, 이러한 상황은 補中益氣湯 뿐 아니라 다른 處方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補中益氣湯의 경우, 後世方 補中益氣湯에 대해 李濟馬가 “이 處方은 李杲의 東垣十書에서 발췌했는데, 勞倦虛弱으로 身熱하고 煩하고 自汗

惡寒 淅淅惡風 翁翁發熱 鼻鳴乾嘔 桂枝湯主之 危亦林 得效方曰 四時瘟疫 當用 香蘇散 龔信 醫鑑曰 傷寒 頭痛 身疼 不分表裏證 當用 藿香正氣散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卽 少陰人 腎受熱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 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發熱惡寒而 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 汗不止 病不愈則 當用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22) 『東醫壽世保元』에는 이 부분 외에도 補中益氣湯이 세 번 더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適應證 규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이 부분만 살펴본다.

2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315.

“日久便血元氣下陷者 厚朴煎 補中益氣湯”

24) 李濟馬 著, 권건혁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55.

“古人之桂枝湯 有證有方而 執證分明 後人之香蘇散 藿香正氣散 有證有方而 執證未分明 今茲更定 證則必程古人之證 藥則並用古人今人之藥”

2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650-651.

“張仲景 傷寒論曰 發熱 惡寒 脈浮者 屬表 卽 太陽證也 太陽傷風 脈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查齋

하고 倦怠한 것을 치료한다. 지금 이것을 다시 (체질에 맞게) 수정하면 黃芪를 3錢으로하고, 升麻와 柴胡는 빼고 藿香과 紫蘇葉을 넣는 것이 마땅하다.”²⁵⁾라고 설명하면서 處方 내용은 수정했지만 主治證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볼 때, 李濟馬가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主治證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다른 處方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도 『東醫壽世保元』에서 기존의 處方을 소개하면서 “張仲景 傷寒論 중에서 少陰人病 (혹은 少陽人病 혹은 太陰人病)에 임상에서 사용했던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處方”²⁶⁾이란 표현과 “唐宋元明 醫家들의 著述 중에서 少陰人病 (혹은 少陽人病 혹은 太陰人病)에 임상에서 두루 사용했던 중요한 處方”²⁷⁾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李濟馬가 傷寒方과 後世方の 主治證 중 적어도 일부는 그 傷寒方과 後世方으로부터 유래한 해당 四象方의 適應證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傷寒方과 後世方과 관련해 다른 여러 문헌에서 수집한 病證을 해당 處方에서 유래한 四象方의 適應證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할지라고, 적어도 四象方의 適用이 가능한 후보 病證으로 상징 및 검토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문헌에 근거해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4) 문헌에 근거해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을 시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2.

“此方 出於李杲東垣書中 治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 今考更定 黃芪 當用 三錢而 當去 升麻 柴胡 當用 藿香 紫蘇葉”

2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1, 698, 715.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 二十三方 ~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 十方 ~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四方 ~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2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2, 699, 715.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 ~ 元明二代醫家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문헌에 근거해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을 시도할 때에는 먼저 四象方이 어떤 傷寒方 혹은 後世方으로부터 유래하였는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李濟馬가 新定한 四象方 중 少陰人 補中益氣湯 처럼 處方名과 藥物 구성상 그 유래가 명확한 경우는 여러 문헌에 기재된 後世方 補中益氣湯證을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適用 가능 후보 病證으로 쉽게 상징할 수 있지만, 少陽人 滑石苦參湯이나 太陰人 太陰調胃湯 처럼 그 유래가 명확하지 않은 四象方의 경우는 추가 病證을 수집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處方名이나 약물 구성 등의 분석을 통해 基源 處方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또 검토 대상 문헌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할 때 出典으로 삼았던 『東醫寶鑑』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용문의 原著로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處方 내용이 수록된 주요 醫書로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수집 病證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四象方의 基源 處方名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아니면 四象方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약물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도 결정할 필요가 있고 또 處方名을 기준으로 한다면 加減된 處方의 病證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원칙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추출된 病證을 무엇을 기준으로 四象方 適應證으로 적합한 것으로 혹은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도 정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의 명확한 정립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한 四象方 適應證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 지금까지의 논의에 이어서, 그 한 예로써, 少陰人 補中益氣湯 適用 가능 病證으로 『東醫寶鑑』에 기재된 後世方 補中益氣湯證을 수집해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검토 문헌을 『東醫寶鑑』으로 한정된 것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할 때 인용문의 出典으로 삼았으므로 『東醫寶鑑』은 검토 문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서적이기 때문이고, 補中益氣湯을 예로 든 것은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後世方

補中益氣湯 모두 類用되는 중요 處方일 뿐 아니라 後世方 補中益氣湯에서 四象方 補中益氣湯이 유래하였다는 연관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處方이므로 관련 病證을 수집하고 그 病證을 四象方 適用 가능 후보 病證으로 상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논란의 여지가 가장 적은 것을 예로 들어 제시함으로써 문헌에 근거해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을 시도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 『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適應證 검토

1)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少陰人 補中益氣湯證

少陰人 및 後世方 補中益氣湯과 관련해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중에서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말하기를 ‘發熱하고 惡寒하고 脈浮한 증상은 表證, 즉 太陽證에 해당한다. 太陽傷風證의 경우에는 脈의 陽部位는 浮하고 陰部位는 弱한데, 陽部位가 浮한 것은 熱이 저절로 나기 때문이고 陰部位가 弱한 것은 汗이 저절로 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으슬으슬 추운 惡寒과 惡風이 있고 찌는 듯이 열이 나며 코가 막히고 마른 구역질이 나는 경우에는 桂枝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危亦林的 『得效方』에서 말하기를 ‘四時瘟疫에는 마땅히 香蘇散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龔信的 『醫鑑』에서 말하기를 ‘傷寒證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는 경우에는 表裏를 가리지 말고 藿香正氣散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인용한 내용과 관련해) 언급해보면, 張仲景이 말한 ‘太陽傷風으로 發熱惡寒’한 증상은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증상으로 發熱惡寒하면서 無汗한 경우는 桂枝湯 혹은 川芎桂枝湯 혹은 香蘇散 혹은 芎藭香蘇散 혹은 藿香正氣散 (중에서 가장 적합한 處方)으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發熱惡寒하면서 有汗한 경우는 亡陽初證으로 절대 가볍고 쉽게 보아서는 안 되니 먼저 黃芪桂枝湯 혹은 補中益氣湯 혹은 升陽益氣湯 (중에서

가장 적합한 處方)으로 三日동안 연속 복용한다. 그래도 汗이 그치지 않고 病이 낮지 않으면 桂枝附子湯 혹은 人蔘桂枝附子湯 혹은 升陽益氣附子湯(중에서 가장 적합한 處方)으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²⁸⁾

② 「少陰人 泛論」 중에서

“陽明證과 太陽證이 위험한 상태일 때는 獨參八物湯이나 補中益氣湯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病勢가 위급할 때에는 3, 4회 연속 복용하고 또 連日 복용하지 않으면 잘 치료되지 않는다.”²⁹⁾

③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六方」 중에서

“補中益氣湯 黃芪 一錢五分 甘草炙 人蔘 白朮 各一錢 當歸 陳皮 各七分 升麻 柴胡 各三分 薑三片 棗二枚 이 處方은 李杲의 東垣十書에서 발췌했는데, 勞倦虛弱으로 身熱하고 煩하고 自汗하고 倦怠한 것을 치료한다. 지금 이것을 다시 (체질에 맞게) 수정하면 黃芪를 3錢으로하고, 升麻와 柴胡는 빼고 藿香과 紫蘇葉을 넣는 것이 마땅하다.”³⁰⁾

④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에서

補中益氣湯 人蔘 黃芪 各三錢 甘草炙 白朮 當歸 陳皮 各一錢 藿香 蘇葉 各三分或五分 薑三片 棗二枚³¹⁾

2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650-651.

“張仲景 傷寒論曰 發熱 惡寒 脈浮者 屬表 即 太陽證也 太陽傷風 脈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齋齋惡寒 漸漸惡風 翕翕發熱 鼻鳴乾嘔 桂枝湯主之 危亦林 得效方曰 四時瘟疫 當用 香蘇散 龔信 醫鑑曰 傷寒 頭痛 身疼 不分表裏證 當用 藿香正氣散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即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 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藭香蘇散 藿香正氣散 發熱惡寒而有汗者 此 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 汗不止 病不愈則 當用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2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68.

“陽明太陽之危者 獨參八物湯 補中益氣湯 可以解之而 病勢危時 若非日三四服而 又連日服則 難解也”

3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2.

“補中益氣湯 黃芪 一錢五分 甘草炙 人蔘 白朮 各一錢 當歸 陳皮 各七分 升麻 柴胡 各三分 薑三片 棗二枚 此方 出於李杲東垣書中 治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 今考更定 黃芪 當用 3錢而 當去 升麻 柴胡 當用 藿香 紫蘇葉”

上記한 네 부분 중에서 ③과 ④는 後世方 補中益氣湯과 少陰人 補中益氣湯 處方 자체를 소개한 것이므로 제외하면 『東醫壽世保元』에 補中益氣湯의 구체적適應證과 관련된 내용은 ①, ②번 뿐이다.

이 중 ①번을 살펴보면, 張仲景의 『傷寒論』적 관점에서는 太陽證 중에서 發熱惡寒하면서 無汗한 증상, 四象醫學의 관점에서는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중에서 發熱惡寒하면서 無汗한 亡陽證 초기에 補中益氣湯을 응용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②번에서는 구체적 病證이 서술되어 있지 않은데, ‘陽明證과 太陽證이 위험한 상태’라는 언급을 토대로 이 病證이 어떤 것인지를 추론해보면 補中益氣湯의 구체적適應證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陽明證과 太陽證에 구체적 증상에 대해 살펴보면,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에 “太陽病으로 表證이 있으면서 환자가 마치 미친 것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는 鬱狂證의 初證이다. 陽明病으로 胃家實하여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鬱狂證의 中證이다. 陽明病으로 潮熱하고 狂言하고 微喘直視하는 경우는 鬱狂證의 末證이다. 太陽病으로 發熱惡寒하면서 汗自出하는 경우는 亡陽證의 初證이다. 陽明病으로 不惡寒하고 反惡熱하면서 汗自出 경우는 亡陽證의 中證이다. 陽明病으로 發熱汗多하는 경우는 亡陽證의 末證이다. 鬱狂證은 모두 身熱하면서 自汗不出하고, 亡陽證은 모두 身熱하면서 自汗出한다.”³²⁾라고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중에서 危險한 상태란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의 “陰證 중에서 太陰病과 陽證 중에서 鬱狂病에는 輕證과 重證이 있고, 陰證 중에서 少陰病과 陽證 중에서 亡陽病은 陰證과 危證이 있다.”³³⁾ 등의 언급을 고려할 때 “太陽病으로

發熱惡寒하면서 汗自出하는 경우는 亡陽證의 初證이다. 陽明病으로 不惡寒하고 反惡熱하면서 汗自出 경우는 亡陽證의 中證이다. 陽明病으로 發熱汗多하는 경우는 亡陽證의 末證이다. 鬱狂證은 모두 身熱하면서 自汗不出하고, 亡陽證은 모두 身熱하면서 自汗出한다.”³⁴⁾라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②번에서는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의 適應證으로 亡陽證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①번의 ‘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³⁵⁾란 부분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東醫壽世保元』에는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구체적適應證으로 汗自出을 主症狀으로하는 亡陽證 한 가지만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補中益氣湯證

『東醫寶鑑』에 後世方 補中益氣湯과 관련된 내용은 「內景篇」에 20 곳, 「外形篇」에 6 곳, 「雜病篇」에 26 곳, 「湯液篇」과 「鍼灸篇」에 0 곳으로 모두 52 곳에 收錄되어 있다.

이 중 原方과 관련된 내용은 「內景篇」에 14 곳, 「外形篇」에 2 곳, 「雜病篇」에 13 곳으로 모두 29 곳에 수록되어 있고, 加減方과 관련된 내용은 「內景篇」에 6 곳, 「外形篇」에 4 곳, 「雜病篇」에 13 곳으로 모두 23 곳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引用한 후 각각의 考察을 통해 補中益氣湯 適應證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⁶⁾

(1) 『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原方과 관련된 내용

3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7.
3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56.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蓋 鬱狂證 都是 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 身熱 自汗出也”
3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56.
“陰證之太陰病 陽證之鬱狂病 有輕證重證也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陰證危證也”

3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56.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蓋 鬱狂證 都是 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 身熱 自汗出也”
3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51.
36) 陶氏補中益氣湯은 高유의 處方名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方意를 가진 處方으로 판단하고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補中益氣湯 加減方은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方意를 기본적으로 內包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색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原方과 加減方의 適應證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 과정에서 분리 검토하였다.

① 【內景篇·身形·老人保養】 만약 노인이 늘 피로하고 기운이 없으면 溫補藥과 진하게 끓인 죽으로 保養하는 것이 마땅하다. 處方으로는 補中益氣湯이나 異功散이나 衛生湯이나 固眞飲子가 적당하다.³⁷⁾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老人이 늘 피로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이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老人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② 【內景篇·氣·少氣】 東垣이 말하기를, “안으로 脾胃를 상하여 中氣가 허약해서 少氣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補中益氣湯이나 益胃升陽湯이 적당하다.”라고 하였다.³⁸⁾³⁹⁾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少氣 증상에 사용한다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동일 항목에서 少氣 증상에 대해 “少氣는 말할 기운도 없는 것이다 ~ 기운이 없어 숨을 잘 쉬지 못한다.”⁴⁰⁾라고 언급했음을 고려할 때, 이 인용문에서의 補中益氣湯 適應證은 ‘말할 기운도 없거나 기운이 없어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內景篇·血·便血】 오랫동안 血便을 보고 元氣가 떨어진 경우에는 厚朴煎이나 補中益氣湯을 쓴다.⁴¹⁾

3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228.

“若一向憊乏之人 則當加溫補 調停餽粥以爲養 宜補中益氣湯 異功散 衛生湯 固眞飲子 却病延壽湯 增損白朮散”

3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256.

“東垣曰 內傷脾胃 致中氣虛少 宜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39) 原文 그대로 해석하면 “안으로 脾胃를 상하여 中氣가 허약해진 경우에는 補中益氣湯이나 益胃升陽湯이 적당하다.”이다. 하지만 【內景篇·氣·少氣】 항목 안에 기재된 문장이고, 또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구체적 病證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므로 “안으로 脾胃를 상하여 中氣가 허약해서 少氣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補中益氣湯이나 益胃升陽湯이 적당하다.”라고 문맥을 고려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번역하였다. 이후에 인용한 문장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4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256.

“少氣者 氣少不足以言也 ~ 少氣不能報息”

4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15.

“日久便血 元氣下陷者 厚朴煎 補中益氣湯”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病證은 ‘오랫동안 血便을 보는 증상’과 ‘원기가 떨어진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오랫동안 血便을 보는 증상’은 구체적이지만, ‘元氣가 떨어진 증상’은 해당 문장 뿐 아니라 『東醫寶鑑』의 동일 항목 내에 구체적 증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마의 관점에서는 ‘證狀과 處方이 모두 기록되어 있던 하지만 해당 證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⁴²⁾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元氣가 떨어진 증상’을 다른 醫書를 통해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그 證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결국 ‘證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따라서 ‘원기가 떨어진 증상’은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은 문제는 ‘오랫동안 血便을 보는 증상’도 같이 제외할 것인가 여부인데,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비록 함께 제시된 補中益氣湯證의 일부분이긴 하나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④ 【內景篇·津液·自汗】 補中益氣湯은 內傷으로 氣가 虛해진 것으로 인한 自汗을 다스리는 神妙한 處方이다.⁴³⁾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自汗 證狀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이미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으로 제시한 亡陽證의 主證狀과 일치한다. 즉 이미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으로 확정된 내용이므로 굳이 추가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內景篇·津液·汗出凶證·通治藥】 自汗과 盜汗을 포함한 여러 땀나는 증상에는 黃芪湯, 牡蠣散, 補中益氣湯, 雙和湯을 通用한다.⁴⁴⁾

42) 李濟馬 著, 권건혁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55.

“有證有方而 執證未分明”

4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52.

“補中益氣湯 治內傷氣虛 自汗之妙方也”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 역시 ④번 항목에서의 考察 내용과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굳이 추가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⑥ 【內景篇·胃腑·胃病治法】 胃가 虛한 경우에는 異功散이나 補中益氣湯을 쓴다.⁴⁵⁾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胃가 虛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문장 뿐 아니라 『東醫寶鑑』의 동일 항목 내에 구체적 증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③에서 살펴본 ‘元氣가 떨어진 증상’과 마찬가지로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⑦ 【內景篇·小便·淋病有五·勞淋】 술과 섹스가 지나쳐 손상을 입으면 膀胱의 氣가 허약해지고 울체되어 淋病이 발생하는데, 補中益氣湯으로 眞氣를 보충해야 한다.⁴⁶⁾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술과 섹스가 지나쳐 발생한 淋病’인데, 이 문장이 있는 ‘勞淋’ 항목에서 “힘들고 피곤해서 기운이 허약함으로 인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땅기며 아픈 것이다”⁴⁷⁾라고 언급했음을 고려할 때, 이 인용문에서의 補中益氣湯 適應證은 ‘술과 섹스를 지나치게 한 후 발생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땅기며 아픈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⑧ 【內景篇·小便·淋病有八·赤白濁】 胃氣가 아래로 처져 발생한 赤白濁은 補中益氣湯이 적당하다.⁴⁸⁾

4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62.

“自汗 盜汗 諸汗 通用黃芪湯 牡蠣散 補中益氣湯 雙和湯”

4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429.

“胃虛 宜異功散 補中益氣湯”

46)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498.

“酒欲過傷 膀胱之氣 虛損 滯而成淋 宜補中益氣湯 升補眞氣”

4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498.

“苦倦虛損 小便不出 小腹急痛”

4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04.

“胃氣下陷 宜補中益氣湯”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胃氣가 아래로 처져 발생한 赤白濁 증상’이다. 그런데 인용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赤白濁이 있다고 해서 補中益氣湯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胃氣가 아래로 처짐이 원인이 된 赤白濁 증상 일 때, 즉 胃氣가 아래로 처짐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兼證이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다. 따라서 ‘胃氣가 아래로 처져 발생한 赤白濁 증상’을 구체적 病證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어떤 兼證이 있을 때 胃氣가 아래로 처져서 발생한 赤白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⁴⁹⁾

⑨ 【內景篇·小便·莖中疼痛】 陰莖 속이 가려우면서 하얀 진액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脾土가 부족하여 金水를 滋養해주지 못하고, 이 때문에 肝經의 血이 虛해지고 火로 인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補中益氣湯과 清心蓮子飲을 번갈아 복용해야 한다.⁵⁰⁾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陰莖 속이 가려우면서 하얀 진액이 나오는 증상’이다.

⑩ 【內景篇·小便·交腸證】 어떤 부인이 병이 나은 후에 소변에 대변이 섞여 나왔다. 이것은 대소변이 (음양)이 흘러가는 기능이 잘못된 것으로서 ‘大小腸交’라고 한다. 먼저 五苓散 두 제를 복용하고, 다시 또 補中益氣湯을 복용한 후 나왔다.⁵¹⁾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소변에 대변이 섞여 나오는 증상’이다.

49) 이하 인용문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 분석하였다.

5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09.

“莖中疼 出白津 多因脾土不足 不能滋生金水 以致肝經 血虛火燥 宜補中益氣湯 與清心蓮子飲間服”

5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10.

“一婦人 病愈後 小便出尿 此陰陽失於傳送 名爲大小腸交也 先服五苓散二劑 又用 補中益氣湯而愈”

그런데 五苓散을 두 제 먼저 복용한 후 補中益氣湯을 복용했기 때문에 이 증상의 主治 효능은 補中益氣湯보다 五苓散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⑪ 【內景篇·小便·飲後卽小便】 환자가 마신 물이 위로 들어가면 곧장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곧 소변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精氣가 脾로 수송되었다가 肺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心火가 위로 치밀어 올라 입과 목이 건조하게 되는 것이다. 補中益氣湯이 적당하다.⁵²⁾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물을 마시면 곧장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곧 소변을 보고 싶어 하는 증상’이다.

⑫ 【內景篇·大便·泄瀉諸證·久泄】 오래도록 설사하는 이유는 대부분 眞陰이 虛損되고 元氣가 아래로 처져 결국 오래도록 설사하는 것이다. 만약 補中益氣湯이나 四神丸으로 그 元氣를 滋養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胸痞, 腹脹, 小便淋瀝의 증상이 생겨 대부분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⁵³⁾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오래도록 하는 泄瀉 증상’이다.

⑬ 【內景篇·大便·痢疾諸證·休息痢】 脾胃가 虛해서 발생한 休息痢는 補中益氣湯이나 參苓白朮散을 쓴다.⁵⁴⁾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脾胃가 虛해서 발생한 休息痢’인데,

이 문장이 있는 ‘休息痢’ 항목에서 “痢疾이 발작했다 멎었다 하는 것을 休息痢라고 한다.”⁵⁵⁾라고 언급했음을 고려할 때, 이 인용문에서의 補中益氣湯 適應證은 ‘痢疾이 발작했다 멎었다 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⑭ 【內景篇·大便·痢疾諸證·虛痢】 痢疾이 오래되어 氣血이 虛弱해지면 八物湯이나 補中益氣湯이 적당하다.⁵⁶⁾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痢疾이 오래되어 氣血이 虛弱해진 증상’인데, 이 문장이 있는 ‘虛痢’ 항목에서 “기운이 약해서 피곤하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배가 약간 혹은 많이 아파 힘을 주지 못한다.”⁵⁷⁾라고 언급했음을 고려할 때, 이 인용문에서의 補中益氣湯 適應證은 ‘痢疾이 오래되어 기운이 약해져 피곤하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배가 약간 혹은 많이 아파 힘을 주지 못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⑮ 【外形篇·前陰·婦人陰門諸疾·陰挺】 여성의 性器에서 살이 1자쯤 빠져나와 아프고 오줌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아침에 補中益氣湯, 저녁에 龍膽瀉肝湯을 복용하고, 곁에는 藜蘆膏를 바른다.⁵⁸⁾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여성의 性器에서 살이 1자쯤 빠져나와 아프고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다. 그런데 아침엔 補中益氣湯, 저녁엔 龍膽瀉肝湯을 복용했기 때문에 이 증상을 補中益氣湯이 전적으로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37.

“凡痢 乍發乍止者 名休息痢”

56)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39.

“痢疾日久 氣血虛弱 宜用八物湯 補中益氣湯”

5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39.

“氣弱困倦 穀食難化 腹微痛 或大痛 並無勞責”

5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891.

“陰挺出一條 尺許 痛墜尿澁 朝服 補中益氣湯 晚服 龍膽瀉肝湯 外塗 藜蘆膏”

5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10.

“病人飲入胃 遽覺至臍下 便欲小便 由精氣不輸於脾 歸於肺 故心火上攻 使口燥 咽乾 宜補中益氣湯”

5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29.

“凡久瀉之由 多因眞陰虛損 元氣下陷 遂成久泄 若非補中益氣湯 四神丸 滋其本源 則後必胸痞 腹脹 小便淋瀝 多致不起”

5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37.

“脾胃虛者 補中益氣湯 參苓白朮散”

⑩【外形篇·前陰·婦人陰門諸疾·陰腫 陰冷 陰痒 陰瘡 交接出血】섹스할 때 여성의 성기에서 피가 나오면서 아픈 것은 성생활을 하다 몸을 상한 것으로 肝火가 脾를 동하게 해서 脾가 血을 혈관 속에 거두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歸脾湯이나 補中益氣湯을 복용하고 외과적으로는 艾葉을 무명베에 싸서 음부 속에 넣고, 亂髮과 靑皮를 태워 가루내서 뿌린다.⁵⁹⁾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섹스할 때 여성의 성기에서 피가 나오면서 아픈 증상’이다. 외과적 치료법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補中益氣湯이 전적으로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⑪【雜病篇·寒(下)·外感挾內傷證】傷寒에 丹溪는 補中益氣湯을 썼고, 海藏(王好古)은 九味羌活湯을 썼는데, 모두 和解시켜서 眞氣를 흠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⁶⁰⁾

【考察】이 인용문에서는 ‘丹溪가 傷寒에 補中益氣湯을 사용했다’라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문장 뿐 아니라 『東醫寶鑑』의 동일 항목 내에 구체적 증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⑫【雜病篇·火·辨五臟熱證·脾熱】‘脾熱’이란 가볍게 누르면 뜨겁지 않고, 근육이나 뼈에 닿을 때까지 세게 눌러도 역시 뜨겁지 않으나, 가볍지도 세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 누르면 뜨거운 느낌이 있는 것으로 열이 肌肉에 있는 것이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는데, 그 증상은 반드시 나른하여 눅기를 좋아하고,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움직일 힘이 없다. 實熱이 있으면 瀉黃散이나 調胃承氣湯을, 虛熱이면 人蔘黃芪散이나 補中益氣湯을 쓴다.⁶¹⁾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열이 肌肉에 있어 가볍게 누르면 뜨겁지 않고, 근육이나 뼈에 닿을 때까지 세게 눌러도 역시 뜨겁지 않으나, 가볍지도 세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 누르면 뜨거운 느낌이 있는 증상’으로,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고 나른하여 눅기를 좋아하고,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움직일 힘이 없는 증상’이다.

⑬【雜病篇·火·辨陽虛陰虛二證】氣虛로 인해 熱이 나는 경우는 陽을 끌어올려 發散시켜야 하므로 四君子湯이나 補中益氣湯이나 益胃升陽湯을 쓴다.⁶²⁾

【考察】이 인용문에서는 ‘氣虛로 인해 熱이 나는 경우에 補中益氣湯을 쓴다’라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문장 뿐 아니라 『東醫寶鑑』의 동일 항목 내에 구체적 증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⑭【雜病篇·內傷·食傷補益之劑】宿食을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킨 뒤에 기운이 없는 경우는 四君子湯이나 六君子湯이나 補中益氣湯으로 補益해준다.⁶³⁾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宿食을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킨 뒤에 기운이 없는 증상’이다.

⑮【雜病篇·內傷·勞倦傷治法】음식을 때맞춰 먹지 못하거나 일을 지나치게 해서 脾胃가 허약해지고 中氣가 부족해지면 補中益氣湯을 위주로 쓴다.⁶⁴⁾

6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70.

“脾熱者 輕手捫之 不熱 重按至筋骨 亦不熱 不輕不重 在輕手 重手之間 此熱在肥肉 遇夜尤甚 其證 必怠惰嗜臥 四肢不收 無氣以動. 實熱則 用瀉黃散 調胃承氣湯 虛熱則 用人蔘黃芪散 補中益氣湯”

6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86.

“氣虛熱 升陽以散之 四君子湯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6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204.

“宿食 吐下後 氣虛 宜補四君子湯 六君子湯 補中益氣湯”

59)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892.

“交接出血而作痛 乃房室有傷 由肝火動 脾而不能攝血 宜用 歸脾湯 補中益氣湯 外用 熱艾綿裹入陰中 亂髮靑皮燒灰爲末 糝之”

6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37.

“傷寒 丹溪用補中益氣湯 海藏用九味羌活湯 皆是和解之意 不使眞氣散失也”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脾胃가 허약해지고 中氣가 부족해진 경우에 補中益氣湯을 쓴다’라고 언급하고, 그 원인으로 ‘음식을 때맞춰 먹지 못하거나 일을 지나치게 한 경우’를 제시했을 뿐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문장 뿐 아니라 『東醫寶鑑』의 동일 항목 내에 구체적 증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② 【雜病篇·內傷·勞倦傷治法】 勞倦傷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순전히 육체노동으로 氣를 상해서 無汗한 경우에는 補中益氣湯을 쓴다.⁶⁵⁾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순전히 육체노동으로 氣를 상해서 無汗한 증상’이다. 이 경우는 『東醫壽世保元』에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으로 제시된 亡陽證의 主證狀과 상반된다. 즉 이미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으로 확정된 내용과 상반되므로 굳이 추가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③ 【雜病篇·內傷·勞倦傷治法】 일을 지나치게 하였거나 음식을 적절하게 먹지 못하여 몸에 열이 나면서 답답하고 땀이 저절로 흐르고 나른한 것을 치료한다. 黃芪 1돈 반, 人蔘, 白朮, 甘草 각 1돈, 當歸, 眞皮 각 5푼, 升麻, 柴胡 각 3푼. 이상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만들어 물에 달여 먹는다.⁶⁶⁾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일을 지나치게 하였거나 음식을 적절하게 먹지 못하여 몸에 열이 나면서 답답하고 땀이 저절로 흐르고 나른한 증상’이다.

④ 【雜病篇·內傷·食後昏困】 勞傷이란 일을 지나치게 해서 元氣가 소모되고 脾胃가 허약해져 風寒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후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이다. 補中益氣湯이 적당하다.⁶⁷⁾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일을 지나치게 해서 元氣가 소모되고 脾胃가 허약해져 風寒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후 정신이 흐릿해지는 증상’이다.

⑤ 【雜病篇·內傷·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內傷病 초기에 熱이 있으면 補中益氣湯이나 益胃升陽湯이나 參朮調中湯이나 凝神散이나 當歸補血湯이나 三補枳朮丸을 쓴다.⁶⁸⁾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內傷病 초기에 熱이 있는 증상’인데, 이 문장이 있는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항목에서 “內傷脾胃의 증상은 처음엔 四肢가 노곤하고 열이나고, 움직일 기운이 없고, 피부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불안한데, 胃氣가 뜨거워 그 熱氣가 가슴을 훈증하여 이러한 內熱證이 발생하는 것이다.”⁶⁹⁾라고 언급했음을 고려할 때, 이 인용문에서의 補中益氣湯 適應證은 ‘四肢가 노곤하고 열이나고, 움직일 기운이 없고, 피부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불안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⑥ 【雜病篇·咳嗽·咳逆治法·痢後咳逆】 딸꾹질이 이질을 앓고 난 뒤에 많이 생기는 것은 中氣가 몹시 허약하기 때문이다. 補中益氣湯이나 調中益氣湯을 많이 먹으면 매우 좋다.⁷⁰⁾

64)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212.

“飲食失時 勞役過度 脾胃虛弱 中氣不足 以補中益氣湯爲主”

65)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212.

“勞倦 亦有二焉 勞力純乎 傷氣而無汗者 補中益氣湯”

66)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212-1213.

“治勞役太甚 或飲食失節 身熱而煩 自汗倦怠 黃耆二錢 人蔘 白朮 當歸 各一錢五分 甘草一錢 陳皮 柴胡 升麻各五分 爲剉作一貼 水煎服”

67)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217.

“勞傷者 過於勞役 耗損元氣 脾胃虛衰 不任風寒 故昏冒 宜用補中益氣湯”

68)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218.

“內傷病 始爲熱中 宜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參朮調中湯 凝神散 當歸補血湯 三補枳朮丸”

69)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218.

“內傷脾胃之證 始則四肢困熱 無氣以動 表熱自汗 心煩不安 胃氣熱 熱氣熏胸中 爲內熱之證”

70)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339.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痢疾을 앓고 난 후에 딸꾹질을 하는 증상’이다.

㉗ 【雜病篇·痰癆 諸瘧證治·勞瘵】 久瘵은 元氣가 虛寒한 것에 속한다. 대체로 氣가 虛하면 惡寒이 나고, 血이 허하면 熱이 나고, 胃가 虛하면 惡寒이 나고, 脾가 虛하면 熱이 나고, 陰火가 아래로 흐르면 惡寒과 身熱이 교대로 발생한다. 만약 痰涎을 토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혹은 설사가 나면서 배가 아프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추워서 부들부들 떠는 것은 모두 脾胃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補中益氣湯만 복용하면 모든 증상이 다 낫는데, 만약 脾胃를 차게 해서 학질을 막는 약을 쓰면 대부분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⁷¹⁾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혹 痰涎을 토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혹은 설사가 나면서 배가 아프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추워서 부들부들 떠는 증상’인데, 이 문장이 있는 ‘久瘵’ 항목의 “久瘵은 惡寒과 發熱이 미미하면서 惡寒하는 중에도 熱이 나고, 熱이 나는 중에도 惡寒이 있다 ~ 질병이 잠시 나았다가도 조금만 피로하면 다시 재발하여 여러 해 동안 낫지 않는다”⁷²⁾라는 설명을 참고로 하면, 이 인용문에서의 補中益氣湯 適應證은 ‘쉽게 재발하면서 여러 해 동안 낫지 않는 오래된 학질로 惡寒과 發熱이 미미하면서 惡寒하는 중에도 熱이 나고, 熱이 나는 중에도 惡寒이 나고 혹은 痰涎을 토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혹은 설사가 나면서 배가 아프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추워서 부들부들 떠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凡咳逆 多發於病後 由中氣虛甚也 補中益氣湯 調中益氣湯 多用甚佳”

7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433-1434.

“久瘵 屬元氣虛寒 皆氣虛則寒 血虛則熱 胃虛則惡寒 脾虛則發熱 陰火下流則寒熱交作 或吐涎不食 或泄瀉腹痛 手足逆冷 寒戰如慄 皆脾胃虛弱也 但服補中益氣湯 諸證悉愈 若投清脾截瘵 多致不起”

7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33.

“久瘵也 寒熱微 寒中有熱 熱中有寒 最難調治 由表裏俱虛 眞元未復 疾雖暫止 小勞復來 經年不差”

㉘ 【雜病篇·婦人·胎漏胎動】 임신부가 일을 지나치게 해서 內傷을 입어 아랫배가 항상 처지고, 심하면 자궁이 탈출되는 것은 기운이 아래로 처졌기 때문이다. 補中益氣湯이 적당하다.⁷³⁾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임산부가 일을 지나치게 해서 內傷을 입어 아랫배가 항상 처지고, 심하면 자궁이 탈출되는 증상’이다.

㉙ 【雜病篇·小兒·語遲 行遲】 한 어린이가 다섯 살이 되어도 말을 못해서 모두들 장애아라고 여기게 되었다. 六味地黃元에 五味子와 鹿茸을 加한 것과 補中益氣湯을 먹었더니 반 년 만에 한두 마디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1년이 되자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⁷⁴⁾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의 구체적 病證은 ‘다섯 살이 되어도 말을 못하는 증상’이다. 그런데 六味地黃湯 加減方과 補中益氣湯을 함께 복용했기 때문에 이 증상을 補中益氣湯이 전적으로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29개 항목 중에서 『東醫壽世保元』에서 이미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으로 제시한 亡陽證의 主證狀과 일치하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 없는 ④번·⑤번 항목을 제외하고, 또 구체적 病證 설명이 없어 검토가 불가능한 ⑥번·⑦번·⑧번·⑨번을 제외하면 모두 23개의 항목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證을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652.

“孕婦內傷勞役 以致小腹常墮 甚則子宮墮出者 氣陷也 宜用補中益氣湯”

7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758.

“一小兒 五歲不能言 咸以爲廢人 用六味地黃元 加五味子 鹿茸 及補中益氣湯 將半年始發一二言 至一年 始言語如常”

표 1. 『東醫寶鑑』에 수록된 後世方 補中益氣湯證 중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

연번	東醫寶鑑 篇名	證狀
1	【內景篇·身形·老人保養】	老人이 늘 피로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
2	【內景篇·氣·少氣】	말할 기운도 없거나 기운이 없어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
3	【內景篇·血·便血】	오랫동안 血便을 보는 증상
4	【內景篇·小便·淋病有五·勞淋】	술과 섹스를 지나치게 한 후 발생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땀기며 아픈 증상
5	【內景篇·小便·淋病有八·赤白濁】	胃氣가 아래로 처져 발생한 赤白濁 증상
6	【內景篇·小便·莖中痒痛】	陰莖 속이 가려우면서 하얀 진액이 나오는 증상
7	【內景篇·小便·交腸證】	소변에 대변이 섞여 나오는 증상
8	【內景篇·小便·飲後卽小便】	물을 마시면 곧장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곧 소변을 보고 싶어 하는 증상
9	【內景篇·大便·泄瀉諸證·久泄】	오래도록 하는 泄瀉 증상
10	【內景篇·大便·痢疾諸證·休息痢】	痢疾이 발작했다 멎었다 하는 증상
11	【內景篇·大便·痢疾諸證·虛痢】	痢疾이 오래되어 기운이 약해져 피곤하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배가 약간 혹은 많이 아파 힘을 주지 못한 증상
12	【外形篇·前陰·婦人陰門諸疾·陰挺】	여성의 性器에서 살이 1자쯤 빠져나와 아프고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13	【外形篇·前陰·婦人陰門諸疾·陰腫陰冷陰痒陰瘡交發出血】	섹스할 때 여성의 性器에서 피가 나오면서 아픈 증상
14	【雜病篇·火·辨五臟熱證·脾熱】	열이 肌肉에 있어 가볍게 누르면 뜨겁지 않고, 근육이나 뼈에 닿을 때까지 세게 눌러도 역시 뜨겁지 않으나, 가볍지도 세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 누르면 뜨거운 느낌이 있는 증상으로,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고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고,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움직일 힘이 없는 증상
15	【雜病篇·內傷·食傷補益之劑】	宿食을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킨 뒤에 기운이 없는 증상
16	【雜病篇·內傷·勞倦傷治法】	순전히 육체노동으로 氣를 상해서 無汗한 증상
17	【雜病篇·內傷·勞倦傷治法】	일을 지나치게 하였거나 음식을 적절하게 먹지 못하여 몸에 열이 나면서 답답하고 땀이 저절로 흐르고 나른한 증상
18	【雜病篇·內傷·食後昏困】	일을 지나치게 해서 元氣가 소모되고 脾胃가 허약해져 風寒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후 정신이 흐릿해지는 증상

연번	東醫寶鑑 篇名	證狀
19	【雜病篇·內傷·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四肢가 노곤하고 열이 나고, 움직일 기운이 없고, 피부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불안한 증상
20	【雜病篇·咳嗽·咳逆治法·痢後咳逆】	痢疾을 앓고 난 후에 딸꾹질을 하는 증상
21	【雜病篇·痰癆·諸癆證治·勞癆】	쉽게 재발하면서 여러 해 동안 낫지 않는 오래된 학질로 惡寒과 發熱이 미미하면서 惡寒하는 중에도 熱이 나고, 熱이 나는 중에도 惡寒이 나고 혹 痰涎을 토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혹 설사가 나면서 배가 아프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추워서 부들부들 떠는 증상
22	【雜病篇·婦人·胎漏胎動】	임산부가 일을 지나치게 해서 內傷을 입어 아랫배가 항상 처지고, 심하면 자궁이 탈출되는 증상
23	【雜病篇·小兒·語遲行遲】	다섯 살이 되어도 말을 못하는 증상

(2) 『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과 관련된 내용

① 【內景篇·津液·自汗】 內傷과 일체의 虛損證으로 인해 自汗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補中益氣湯에 附子和 麻黃根과 浮小麥을 조금 넣어서 쓰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⁷⁵⁾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自汗 證狀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이미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으로 제시한 亡陽證의 主證狀과 일치한다. 즉 이미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으로 확정된 내용이므로 굳이 추가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② 【內景篇·痰飲·痰飲治法】 脾가 허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六君子湯에 竹瀝과 生薑汁을 더해 쓰거나 補中益氣湯에 半夏와 竹瀝과 生薑汁을 加하여 쓴다.⁷⁶⁾

7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52.

“凡內傷 及一切虛損之證 自汗 不止者 總用 補中益氣湯 少加附子 麻黃根 浮小麥 其效如神”

76)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80.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脾가 허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이다.

③【內景篇·胞·通血治法】 胃가 弱하여 血이 말라 月經이 끊어진 경우에는 補中益氣湯에 川芎과 生地黃과 天花粉을 加하여 쓴다.⁷⁷⁾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胃가 弱하여 血이 말라 月經이 끊어진 증상’이다.

④【內景篇·小便·關格證】 中氣가 허약하여 발생한 關格證에는 補中益氣湯에 檳榔을 加하여 氣를 정상적으로 오르내리게 한다.⁷⁸⁾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中氣가 허약하여 발생한 關格증상’인데, 이 문장이 있는 ‘關格證’ 항목에서 “關은 小便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格은 구토하는 것이다 ~ 大小便을 보지 못하는 것이 陰陽關格이다.”⁷⁹⁾라고 언급했음을 고려할 때, 이 인용문에서의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 適應證은 ‘中氣가 허약하여 구토하면서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內景篇·小便·關格宜吐瀉】 中氣가 虛하여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 발생한 關格證에는 補中益氣湯에 木香과 檳榔을 加하여 氣를 정상적으로 오르내리게 한다.⁸⁰⁾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④번 항목과 같다.

⑥【內景篇·大便·泄瀉諸證·滑泄】 痢疾을 일으키는 泄瀉를 참지 못하고, 泄瀉가 오랜 기간 멎지 않으며, 항문이 죽통처럼 벌어져서 곧바로 쏟아져 나와 참을 수 없는 증상은 元氣가 처졌기 때문인데, 補中益氣湯에 白芍藥과 訶子和 肉豆蔻를 加해서 쓴다.⁸¹⁾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痢疾을 일으키는 泄瀉를 참지 못하고, 泄瀉가 오랜 기간 멎지 않으며, 항문이 죽통처럼 벌어져서 곧바로 쏟아져 나와 참을 수 없는 증상’이다.

⑦【外形篇·耳·虛聾】 노동으로 인해 기운이 많이 빠져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補中益氣湯에 菖蒲와 白茯苓과 黃柏(소금물에 축여 볶은 것)과 知母(소금물에 축여 볶은 것)를 加해서 水에 달여 먹는다.⁸²⁾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노동으로 인해 기운이 많이 빠져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다.

⑧【外形篇·皮·麻木】 온몸이 뻣뻣한 것은 氣가 虛하기 때문이다. 補中益氣湯에 木香과 烏藥과 香附子和 青皮와 防風과 川芎을 加하고 桂枝를 조금 加하여 經絡을 운행시킨다.⁸³⁾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온몸이 뻣뻣한 증상’이다.

⑨【外形篇·前陰·婦人陰門諸疾·陰挺】 여성의 性器로 버섯이나 닭벼슬같이 생긴 것이 빠져 나오고, 性器 주변이 붓고 아픈 것은 肝氣가 울체되고 脾氣가 虛해 처진 것인데, 먼저 補中益氣湯에 梔子和 茯苓과 車前子和 青皮를 加해 써서 肝火를 식히고 脾氣를 올려야

“脾虛 不能運化者 六君子湯 加竹瀝 薑汁 或 補中益氣湯 加半夏 竹瀝 薑汁”
7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449.
“胃弱血枯經斷 宜補中益氣湯 加川芎 生地黃 天花粉”
7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492.
“中虛者 補中益氣湯 加檳榔 以升降之”
79)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492.
“關則不得小便格則吐逆 ~ 大小便不通亦謂之陰陽關格”
8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493.
“中氣虛而不運者 補中益氣湯 加木香 檳榔 以升降之”

8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23.
“滑泄不禁 瀉久不止 大孔如竹筒 直出無禁 氣陷下者 補中益氣湯 加白芍藥 訶子 肉豆蔻”
8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659.
“若勞役脫氣者 補中益氣湯 加菖蒲 白茯苓 黃柏 知母並鹽 水炒煎服”
8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804.
“渾身麻 是氣虛也 補中益氣湯 加木香 烏藥 香附子 青皮 防風 川芎 少加桂枝行經”

한다. 그리고 다시 歸脾湯에 梔子和 茯苓과 川芎을 加하여 조리하고 곁에는 藜蘆膏를 발라준다.⁸⁴⁾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여성의 性器로 버섯이나 닭벼슬같이 생긴 것이 빠져 나오고, 性器 주변이 붓고 아픈 증상’이다. 그런데 歸脾湯 加減方도 쓰고 藜蘆膏도 外用하기 때문에 本證을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만으로 치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⑩ 【外形篇·後陰·脫肛】 脫肛은 氣가 아래로 처져서 발생한 것이다. 肺는 魄門(항문)을 주관하므로 肺가 熱하면 항문이 수축되고, 肺가 寒하면 항문이 脫出된다. 따라서 반드시 肺와 胃를 溫補하여야 한다. 補中益氣湯에 訶子和 栲根白皮를 조금 加하여 쓰거나 猬皮散이나 鈞腸丸을 쓴다.⁸⁵⁾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脫肛 증상’이다.

⑪ 【雜病篇·寒(下)·外感挾內傷證】 傷寒은 內傷을 겸한 것이 심증팔구이다. 대개 邪氣가 모여드는 것은 正氣가 반드시 虛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補中益氣湯만 加減해서 쓰면 된다. 氣虛가 심하면 附子를 조금 加하여 人蔘과 黃芪의 효과를 촉진해야 한다.⁸⁶⁾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內傷을 겸한 傷寒 증상에 補中益氣湯 加減方을 사용한다’라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문장 뿐 아니라 『東醫寶鑑』의 동일 항목 내에 구체적 증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⑫ 【雜病篇·暑·注夏病】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입맛이 적어지고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속칭 ‘주하병’이라고 하는데, 陰虛하여 元氣가 부족한 것이다. 補中益氣湯에서 升麻와 柴胡를 빼고 黃柏과 白芍藥과 麥門冬과 五味子를 加하여 쓴다. 痰이 있는 경우에는 天南星과 半夏를 加한다.⁸⁷⁾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입맛이 적어지고 몸에서 열이 나는 속칭 注夏病 증상’이다.

⑬ 【雜病篇·火·火熱有實有虛】 虛火일 때는 潮熱이 간혹 나타나고 입은 마르지만 갈증은 나지 않는데, 人蔘地骨皮散이나 補中益氣湯에 芍藥과 黃栢을 加하여 쓴다.⁸⁸⁾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潮熱이 간혹 나타나고 입은 마르지만 갈증은 나지 않는 虛火 증상’이다.

⑭ 【雜病篇·內傷·酒病治法】 술독으로 머리가 아프고 토하면서 어지러울 때에는 補中益氣湯에서 白朮을 빼고 半夏와 白芍藥과 黃芩과 黃栢을 加하여 쓴다.⁸⁹⁾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술독으로 머리가 아프고 토하면서 어지러운 증상’이다.

8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891.

“陰中突出 如菌如雞冠 四圍腫痛 乃肝鬱脾虛下陷 先以補中益氣湯 加梔子 茯苓 車前子 青皮 清肝火 升脾氣 更以歸脾湯 加梔子 茯苓 川芎 調理 外塗 藜蘆膏”

8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909.

“脫肛者 氣下陷也. 肺主魄門 肺熱則肛門入, 肺寒則肛門脫出 必須 溫肺補胃 補中益氣湯 加訶子 栲根白皮少許 或 猬皮散 鈞腸丸”

86)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37.

“傷寒兼內傷者 十居八九 蓋邪之所湊 其氣必虛 只用補中益氣湯 出入加減 氣虛甚者 少加附子 以行參芪之功”

8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53.

“人有遇春末夏初 頭痛脚弱 食少體熱 世俗謂之 注夏病 屬陰虛 元氣不足 宜補中益氣湯 去升柴 加黃栢 白芍藥 麥門冬 五味子 有痰 加天南星 半夏”

8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72.

“虛火 潮熱有間 口燥不渴 宜人蔘地骨皮散 或補中益氣湯 加芍藥 黃栢”

89)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207.

“中酒頭痛 嘔吐 眩暈 補中益氣湯 去白朮 加半夏 白芍藥 黃芩 黃栢 乾葛”

⑮【雜病篇·內傷·辨內外傷證】內傷證에 外感證이 끼어 있을 때는 補中益氣湯에 봄에는 川芎과 防風과 柴胡와 荊芥와 紫蘇葉과 薄荷를 加하고, 여름에는 乾葛과 石膏와 麥門冬과 薄荷를 加하고 升麻와 柴胡는 두 배로 해서 쓰고, 가을에는 羌活과 防風과 荊芥를 加하고, 겨울에는 麻黃과 桂枝와 乾薑 같은 종류를 加하여 쓴다.⁹⁰⁾

【考察】이 인용문에서는 ‘內傷證에 外感證이 끼어 있을 때 補中益氣湯 加減方을 사용한다’라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문장 뿐 아니라 『東醫寶鑑』의 동일 항목 내에 구체적 증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⑯【雜病篇·虛勞·注夏病】注夏病은 陰虛하여 元氣가 부족한 병에 속하니 補中益氣湯을 加減하여 쓴다.⁹¹⁾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⑫번 항목과 같다.

⑰【雜病篇·咳嗽·咳逆治法·痢後咳逆】胃氣가 부족하여 氣가 이어지지 못해서 딸꾹질이 날 때는 補中益氣湯에 竹茹와 生薑과 炮附子 한 쪽을 加하여 달여 먹는다.⁹²⁾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胃氣가 부족하여 氣가 이어지지 못해서 딸꾹질이 나는 증상’이다.

⑱【雜病篇·積聚·養正積自除】또 五積과 六聚와 癥瘕와 積塊를 치료할 때 元氣가 虛弱하고 몸이 여위고 약하며 飲食을 잘 먹지 못하고 四肢가 무거우면 補中益氣湯에 三稜과 蓬朮과 靑皮와 香附子와 桔梗과 藿香과 益智仁과 肉桂를 加하여 쓴다.⁹³⁾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五積과 六聚와 癥瘕와 積塊를 치료할 때 元氣가 虛弱하고 몸이 여위고 약하며 飲食을 잘 먹지 못하고 四肢가 무거운 증상’이다.

⑲【雜病篇·浮腫·水腫治法】오랫동안 앓은 痢疾 증상이 水腫(水氣)으로 변한 경우에는 加味腎氣丸이나 혹은 補中益氣湯에 炮附子를 加하여 오랫동안 복용해야 한다.⁹⁴⁾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오랫동안 앓은 痢疾 증상이 水腫(水氣)으로 변한 증상’이다.

⑳【雜病篇·痲瘡·瘡書發夜發宜分治】氣虛하여 瘡疾이 낮에 발작하는 경우에는 六君子湯이나 補中益氣湯에 半夏 黃芩을 加하여 쓴다.⁹⁵⁾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氣虛하여 瘡疾이 낮에 발작하는 증상’이다.

㉑【雜病篇·痲瘡·寒熱似瘡】감기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추워서 숨쉬기가 어려워서 허벅지가 떨리며 온몸의 뼈가 흔들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먹지 못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熱이 나는 것이 마치 학질과 비슷한 경우에는 맥이 반드시 弦하지는 않는데, 그 증상에 따라 치료하여야 한다. 熱이 심한 경우에는 小柴胡湯을 쓰고, 惡寒이 심한 경우에는 人蔘養胃湯을 써서 和解시킨다. 內傷으로 虛한 경우에는 補中益氣湯에 山查와 麥芽와 白豆蔻를 加하여 써서 脾를 補하면 증상이 저절로 그친다.⁹⁶⁾

9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210.

“如內傷 挾外感者 則於補中益氣湯內 春加川芎 防風柴胡 荊芥紫蘇葉薄荷 夏加乾葛石膏麥門冬薄荷倍升柴 秋加羌活防風荊芥, 冬加麻黃桂枝乾薑之類”

9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266.

“屬陰虛元氣不足 補中益氣湯 加減用之”

9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339.

“胃氣不足 不能接續 而嘔作者 宜補中益氣湯 加竹茹 生薑 炮附子一片煎服”

9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359.

“又治 五積六聚 癥瘕積塊 元氣虛弱 瘦怯 飲食不進 四肢痠困 宜補中益氣湯 加三稜 蓬朮 靑皮 香附子 桔梗 藿香 益智仁 肉桂”

9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375.

“久痢變水氣 宜加味腎氣丸 或補中益氣湯 加炮附子久服”

9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32.

“氣虛 晝發 宜六君子湯 補中益氣湯 加半夏 黃芩”

96)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440-1441.

“感冒之人 忽覺毛寒肢慄 百骸鼓撼 嘔不能食 末幾轉而發熱 皆似瘧證 不必脈弦 但隨證施治 熱多 小柴胡湯 寒多 人蔘養胃湯 和解之 內傷虛者 補中益氣湯 加山查 麥芽 白豆蔻 扶脾自止矣”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감기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추워서 숨털이 일어서고 허벅지가 떨리며 온몸의 뼈가 흔들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먹지 못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熱이 나는 것이 마치 학질과 비슷하면서 內傷으로 虛한 증상’이다.

② 【雜病篇·癰疽(下)·癰疽雜證·癰疽痰盛】 痰이 盛하여 숨이 가쁜 경우에는 六君子湯에 生薑과 大棗를 加하여 달여 먹거나 補中益氣湯에 麥門冬과 五味子와 桑白皮를 加하여 달여 먹는다.⁹⁷⁾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痰이 盛하여 숨이 가쁜 증상’이다.

③ 【雜病篇·婦人·產後諸證·產後陰脫·陰脫治驗】 어떤 부인이 출산 후에 陰門으로부터 사발을 마주 겹쳐놓은 것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子宮이었다. 분명히 氣血이 허약하여 처져 내려온 것이므로 升麻와 當歸와 黃芪의 양을 많이 해서 2첩을 먹었더니 반일 만에 들어갔다. 다만 손바닥만한 건조한 조각이 침상 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 부인은 腸이 쪼개진 줄 알고 두려워 울고 있었다. 내가 ‘이것은 腸이 아니라 糟粕이다. 혹 肌肉이 쪼개진 것이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니, 만약 氣血이 충실해지면 반드시 완전히 살아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補中益氣湯에서 柴胡를 빼고 연달아 2-3첩을 양을 많이 해서 먹었더니 잠시 후에 그것이 들어갔다. 그 뒤에 또 四物湯에 人蔘을 가하여 100여 첩을 3년 동안 계속해서 먹었더니 후에 다시 자식을 낳았다.⁹⁸⁾

9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515.

“痰盛喘急 六君子湯 加薑棗煎服 或補中益氣湯 加麥門冬 五味子 桑白皮煎服”

9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682.

“一婦人 產後陰戶中下一物如合鉢狀 有二歧 此子宮也 必氣血弱而下墜 遂用升麻 當歸 黃芪大料 二貼與之 半日已收 但乾破一片如掌大 落在席上 其婦恐 腸破 哭泣 予思之 此非腸胃乃糟粕也 肌肉破尚可補完 若氣血充盛 必可生滿 用補中益氣湯 去柴胡 連進二三大劑 一響而收 後以四物湯加人蔘 百餘貼 連服三年 後復生子”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의 구체적 病證은 ‘출산 후에 陰門으로부터 사발을 마주 겹쳐놓은 것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나온 증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23개 항목 중에서 『東醫壽世保元』에서 이미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으로 제시한 亡陽證의 主證狀과 일치하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 없는 ①번 항목을 제외하고, 또 구체적 病證 설명이 없어 검토가 불가능한 ⑩번·⑮번을 제외하면 모두 20개의 항목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 適用證을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東醫寶鑑』에 수록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加減方證 중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

연번	東醫寶鑑 篇名	證狀
1	【內景篇·痰飲·痰飲治法】	脾胃 허해서 소화 잘 되지 않는 증상
2	【內景篇·胞·通血治法】	胃가 弱하여 血이 말라 月經이 끊어진 증상
3	【內景篇·小便·關格證】	中氣가 허약하여 구토하면서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
4	【內景篇·小便·關格宜吐瀉】	④번 항목과 동일
5	【內景篇·大便·泄瀉諸證·滑泄】	줄줄 흐르는 泄瀉를 참지 못하고, 泄瀉가 오랜 기간 멎지 않으며, 항문이 죽통처럼 벌어져서 곧바로 쏟아져 나와 참을 수 없는 증상
6	【外形篇·耳·虛聾】	노동으로 인해 기운이 많이 빠져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
7	【外形篇·皮·麻木】	온몸이 뻣뻣한 증상
8	【外形篇·前陰·婦人陰門諸疾·陰挺】	여성의 性器로 버섯이나 닭벼슬같이 생긴 것이 빠져 나오고, 性器 주변이 붓고 아픈 증상
9	【外形篇·後陰·脫肛】	脫肛 증상
10	【雜病篇·暑·注夏病】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입맛이 적어지고 몸에서 열이 나는 속칭 注夏病 증상
11	【雜病篇·火·火熱有實有虛】	潮熱이 간혹 나타나고 입은 마르지만 갈증은 나지 않는 虛火 증상
12	【雜病篇·內傷·酒病治法】	술독으로 머리가 아프고 토하면서 어지러운 증상
13	【雜病篇·虛勞·注夏病】	⑩번 항목과 동일

연번	東醫寶鑑 篇名	證狀
14	【雜病篇·咳嗽·咳逆治法·病後咳逆】	胃氣가 부족하여 氣가 이어지지 못해서 딸꾹질이 나는 증상
15	【雜病篇·積聚·養正積自除】	五積과 六聚와 癥瘕와 積塊를 치료할 때 元氣가 虛弱하고 몸이 여위고 약하며 飲食을 잘 먹지 못하고 四肢가 무거운 증상
16	【雜病篇·浮腫·水腫治法】	오랫동안 앓은 痢疾 증상이 水腫(水氣)으로 변한 증상
17	【雜病篇·痰癆·瘵書發夜發宜分治】	氣虛하여 癆疾이 낮에 발작하는 증상
18	【雜病篇·痰癆·寒熱似癆】	감기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추워서 숨털이 일어나고 허벅지가 떨리며 온몸의 뼈가 흔들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먹지 못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熱이 나는 것이 마치 학질과 비슷하면서 內傷으로 虛한 증상
19	【雜病篇·癰疽(下)·癰疽雜證·癰疽自痰盛】	痰이 盛하여 숨이 가쁜 증상
20	【雜病篇·婦人·產後諸證·產後陰脫·陰脫治驗】	출산 후에 陰門으로부터 사발을 마주 겹쳐놓은 것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나온 증상

Ⅲ. 結論

『東醫壽世保元』收錄 四象方의 適應證을 문헌에 근거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한 예로 『東醫寶鑑』에 收錄된 補中益氣湯證 및 補中益氣湯 加減方 適用證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기존 醫學의 病證 및 處方의 出典인 『東醫寶鑑』의 방대한 분량 중에서 실제 인용된 부분이 극히 적음을 고려할 때, 『東醫寶鑑』의 나머지 부분을 체계적으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處方名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東醫寶鑑』에서 관련 문장을 추출한 후 그 문장 내용을 분석하여 四象方 適應證 여부를 가리는 방법이 있다.
2. 張仲景의 傷寒方에는 ‘經驗設方’이란 표현을 쓰고 唐宋元明 醫家들의 後世方에는 ‘經驗行用要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볼 때, 이제마는 後世方이 傷寒方보다 더 體質의 특성에 부합하며

널리 쓰인 중요한 處方이라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3.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을 基源別로 분류하면 傷寒方을 기원으로 둔 四象方, 後世方을 기원으로 둔 四象方, 명확한 기원을 찾을 수 없는 독창적 四象方의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傷寒方과 後世方에서 유래한 四象方의 경우, 다른 여러 문헌에서 수집한 基源處方의 病證을 해당 四象方의 適用이 가능한 후보 病證으로 상정 및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고, 따라서 문헌에 근거해 『東醫壽世保元』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4. 문헌 검토를 통한 四象方 適應證 확장 방안의 한 예로써, 少陰人 補中益氣湯 適用 가능 病證 후보로 『東醫寶鑑』에 기재된 後世方 補中益氣湯證 및 補中益氣湯加減方 適用證을 수집한 결과 모두 23개의 항목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證과 20개의 항목에서 제시된 後世方 補中益氣湯加減方 適用證을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으로 상정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논문>

1. 원진희, 김경요, 유관식. 東醫壽世保元에서 인용한 東醫寶鑑의 文章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 Vol.18(3). p.12.
2. 이필우, 윤창렬. 東醫壽世保元 인용문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제12권 2호. p.84.

<단행본>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51, 656, 668, 671, 672, 676, 677, 698, 699, 701, 715, 724. pp.650-651,

2. 李濟馬 著, 권건혁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53, 155, 193, 228, 244, 253.
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228, 256, 315, 352, 362, 380, 429, 449, 492, 493, 498, 504, 509, 510, 523, 529, 537, 539, 659, 804, 891, 892, 909, 1137, 1153, 1170, 1172, 1186, 1204, 1207, 1210, 1212, 1217, 1218, 1266, 1339, 1359, 1375, 1432, 1433, 1515, 1652, 1682, 1758. pp.1212-1213, 1433-1434, 1440-1441.
4. 柳周烈 著. 東醫四象醫學講座. 서울. 大星文化社. 1998.
5. 金洲 著. 四象醫學 性理臨床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8.
6. 朴爽彦 編譯.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1977.